

# ‘진안홍삼축제’ 시작됐다

### 첫날 ‘군민의 날’ 행사·금척 공연 등 펼쳐져... 22일까지 진행

2017 진안홍삼축제가 19일 개막했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진안군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건강충전! 활력충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4일간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진행된다.

개막 첫날인 19일에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대형 홍삼모형 에드빌론에 띄우는 대동프로젝트와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단합 체육대회, 홍삼장터 열타기 및 마당극, 홍삼나라 퍼레이드 등이 펼쳐졌다.

이날 오후 5시 30분에는 마이산북부 마이몬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해외 사절단, 내·외빈과 군민, 관광객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군민의 날 및 진안홍삼축제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윤석정 재진안군향우회장이 진안군민의 장 대상을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박희종, 공익새마을장 문중운, 산업군로장 고영민, 애향장 전승현, 한경순씨가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군민의장 수상자들과 축제추진위원장 건배제를 시작으로 대형 홍삼주부수 퍼포먼스와 진안대형 홍삼1호인 ‘진심쥬’를 군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건배했다. 바로 이어 펼쳐진 주제공연에서



2017 진안홍삼축제가 19일 개막했다. 이번 축제는 ‘건강충전! 활력충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4일간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진행된다.

는 태조 이상계의 금척설화 내용을 담은 ‘금척! 하늘을 날다’ 공중극에 공연으로 진안 마이산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 했다.

끝으로 진안시관 제32회 군민노래자랑이 펼쳐져 초대가수 김단기, 성진우, 서운의 출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에 오셔서 축제와 함께 건강충전! 활력충전! 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22일까지 진행되는 홍삼축제에서는 EDM 파티와 21일 태진아, 설운

도, 장윤정, 김연자, 오승근 등 대한민국 트로트 별들과 함께하는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22일 남진, 최성수, 전영록 등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을의 낭만을 더해줄 진안홍삼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이외에도 전통중삼체험과 현대식 중삼제품, 홍삼족욕, 업기!홍삼가래떡먹기, 홍삼대박트리기, 홍삼카테일쇼, 홍삼대방출, 홍삼사랑남시 등 체험프로그램과 홍삼튀김, 홍삼한우, 홍삼막걸리, 홍삼양갱과 같은 다양한 홍삼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적상산사고 조선왕조실록’ 국제학술대회 열려

무주 적상산사고 조선왕조실록의 보존 활용을 위한 2017년 국제학술대회가 19일 무주군청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진행된 것으로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백경태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정수 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군이 세계기록유산 300년 가까이 품고 있었고 사고를 복원해 역사의 산실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시간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가치, 적상산사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 우석대학교 조법종 교수의 사

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시간에는 중국 연변대학교 이용식 교수 등 7명이 △조선왕조실록으로부터 본 조선과 류큐의 교류 및 조선의 류큐에 대한 인식, △조선왕조실록으로 보는 무주강유역 역사, △무주 적상산사고 실록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무주 적상산사고본실록의 활용, △한국전쟁 당시 유실된 적상산사고본의 가치규명 및 회수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전북대학교 하우봉 교수를 좌장으로 군산대학교 김중수 교수 등 7명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적상산사고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족보인 선원록 등 5,511권이 약 300년간 보관돼 있던 곳으로, 현재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 복본 39권이 제작, 전시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 20억 경제효과

무주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무주산골영화제 황정수 조직위원장과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영규모 및 방문객수, 관람객 분포 등 지난 6월 개최됐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내용을 결산하고 △관객 만족도 조사결과와 △자체 평가 결과 등을 공유했다.

무주산골영화제 황정수 조직위원장(무주군수)은 “산골영화제는 ‘자연으로 떠나는 영화소풍’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개최 5년 만에 무주의 문화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휴양영화제로서 무주산골영화제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유익한 영화제 만들기에 정성을 쏟아보자”고 말했다.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30개국 72편의 영화가 상영됐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5일 간 총 2만8,000여 명이 실제로 영화를 관

람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6월 3일부터 5일까지 무주예체문화관 1층 대공연장 앞 안내데스크에서 진행된 관객 만족도 조사(241명 대상) 결과(평균 점수)는 87.7점(2016년 83.3)점이었으며, 올해 처음 무주산골영화제를 방문한 관객비율(55%)과 재방문한 관객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이유로는 주로 영화를 보기 위해(54%), 또는 여행과 영화를 함께 즐기기 위해(16%), 휴가를 보내기 위해(8%), 공연을 보기 위해(5%) 방문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5%가 내년 영화제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86%의 관객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고 87%의 관객이 무주산골영화제로 인해 무주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불편했던 점은 없다(22%)와 행사장의 교통편(22%)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숙박시설(19%), 불거리·즐길거리 부족(15%) 등을 꼽았으며 수준 높은 부대행사 개발(28%) 등을 노력해줄 점으로 꼽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교통정책 우수사례 선정

진안군은 19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무진장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사업이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7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진안군 교통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일명 ‘행복 버스’로 불리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면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운영노선에 대해 운영횟수를 단축하는 대신 콜센터 운영을 통한 승합차량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무진장 지역 농촌버스요금 1000원으로 단일화를 추진했다.

또한 버스정류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등을 통해 취약한 교통서비스를 보완해 왔다.

올해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100원 택시 운영 등에 힘쓰고 있다. 한 주민은 “읍내와 멀리 떨어진 집에서 이제 편하게 나가 장도 보고, 복지타운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부동산 가격공시위 개최

장수군은 18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박현식 민원과장 등 심의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 유지 여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요시점 지가 심의가 이뤄졌다.

개별지가 심의대상은 992필지이며, 토지이용 원인을 반영해 지가를 산정했다. 이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지가는 오는 31일 공시되고, 공시된 가격의 이의신청기간은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4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장수군이 지난 18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한영희 부군수) 주재로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과 업무관련 과장인 임명직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규제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역점사업 마무리 총력전 펼친다

### 주요 업무 시책보고회 개최... 41개 신규시책 발굴 · 30개 국가사업 현안 관리

장수군은 올 하반기 최대 행사였던 2017년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를 마치고 올해 역점사업 마무리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규모 양돈단지의 환경정화와 더불어 이와 연계한 부지 활용에 전북도 소방안전타운을 유치(8월 11일)하고, 6차산업 육성을 위한 만남의 광장(레드푸드 융복합 센터)조성 등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은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건설’의 비전 달성을 위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시책보고회를 한영희 부군수 주재하에 개최했다.

지난11일부터 18일까지 총 18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보고회는 민선6기 주요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연계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서별 우수성과의 재조명과 부진사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내년도 업무설계로 군정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와 연계한 현안사업, 역점 신규시책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

리를 가졌다.

이날 시책 보고에서 일반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내고향 장수 지킴이 제도, 봉화산 철쭉단지 특화림 조성 등 41개의 실현가능한 신규시책이 발굴되어 내년에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장수로하스 힐링 투어패스 구축, 백두대간을 품은 철의왕국 전복가야 등 30개의 국가사업을 현안으로 관리하고, 향후 추가 발굴을 실시하여 100개 사업 국·도비 3,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